



The 2nd International Seminar for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 in Asia

제2차 아시아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Date November 2nd, 2011

Venu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아시아 국가의 의회기능 향상을 위한 정보와 전문 지식의 지원

윤정석, 정치학박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번 회의를 주관하시는 입법조사처 처장이신 심지연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 의회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각 나라의 대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여기에서 인도, 라오스, 몽골 그리고 베트남의 여러 대표를 모시고 의회연구기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첫 번째 세미나를 열었던 것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의회강화를 지원하고 가능한 부차적인 강화 방안을 서로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의회와 의회의 지원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인이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발연)를 이끌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침 국회의 입법조사처가 개청할 무렵인 2008년 이후 4년 간 의발연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회발전연구회는 한국에서 의회의 기능강화와 입법부 발전의 요구가 많았던 1981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 4년간에 걸쳐 태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몽고로부터 각 나라의 입법기관의

기능강화와 입법지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의발연을 방문하신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주제에 대한 주변국가의 학자와 전문가, 또는 입법기관의 의원들이 한국의 경험을 듣고자 하며 한국의 경험에 대하여 지식을 나누고 상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는 정보와 지식 지원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적시에, 정확하고 요구에 부응하는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이야말로 의회와 그 구성원의 생산적인 기능을 다하는데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업무능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수의 나라만이 그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의회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겨우 이 지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만이 입법과정과 행정부를 감시하는 의회기능을 지원할 만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나 연구업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그 외의 지역에서 기존 의회구조를 연구하여 의회조직과 그 기능의 비교연구를 수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의회지원 기관이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식을 생산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 위원회제도, 국회 직원의 입법지원체제, 국회의 행정부 감시제도, 그리고 본회의를 중심으로 한 국회운영의 기본원칙과 법규에 관한 연구를 베트남, 라오스, 몽고 그리고 필리핀의 연구자에게 위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연구결과는 주로 유엔개발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국회강화프로젝트 담당기관에게 보급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회사무처 연구자와 베트남 국회의 상임위원회 부설 베트남 의회발전연구회 연구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2개월 전에 의발연을 방문한 라오스의 국회법사위원회 위원장과 그 연구 직원에게 배포한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한국정치가 보다 민주적으로 전환되어 가는 시기인 1980년부터 민주적이며 균형 잡힌 정부의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

후 한국정부의 민주적 통치를 확립하고 국회의 제도개선 일을 직접 도운 일이 있습니다. 다당제를 확립하고, 선거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확립하는 조치를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제도 개선과 거버넌스의 유형에 관해서 상의할 필요가 있는 이들과 저의 개인적 경험에 관해서 즐겁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 학자, 정당인, 그리고 여러 기관의 연구자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함은 모두 80장이 넘습니다. 헌법문제라든지 의회제도의 개선 문제 등에 관련된 여러 주제의 회의와 워크숍에 분야에 따라 한국의 젊은 학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상당히 오래 전에 외국원조의 수혜국의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서야 아시아 태평양의 여러 나라가 각 나라의 의회발전과 강화에 필요한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지원 단체는 다국적 집단과 개별국가의 여러 프로젝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NDP프로그램이 가장 복합적이고 다양한데 미국국제원조청, 국제은행연구소, 캐나다의 의회센터, 미국국립민주주의연구소 등의 기관과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재단이 이끄는 개별 지원 단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나라의 개별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기관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그리고 남미의 의회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UN의 깃발 아래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굿거버넌스 프로그램과 사회-경제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UNDP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내학자를 통해서 UNDP의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활동 내용을 조사·연구하도록 하였으며, 한국 국회가 앞으로 이 지역의 나라가 추구하는 의회 강화노력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를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의회 직원의 기능향상, IT기구의 확보 그리고 사무기기와 사무실 등의 확보가 시급한 것이었는데 이 지역의 지원 단체도 관련 국가의 국회의원, 학자 그리고 전문가를

모아 여러 차원의 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결국 국회 직원의 교육 훈련과 입법 관련학자의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여년에 걸쳐 한국의 국회가 성취한 의회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체제의 확보와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인원의 통계를 보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회가 성취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 299명의 상근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원 지원 인원이 1,794명이고, 교섭단체의 연구직원이 67명, 국회사무처의 행정 및 입법지원 인원이 1,229명, 도서관 직원 267명, 국회예산처 직원 105명과 입법조사처 직원 92명을 합하면 모두 국회의 정상적 운영에 3,853명의 인원이 각각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련하게 될 협력적 네트워크의 초기에 취해야 할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회 사이에 지금까지 확보한 상호 협력적 기초 작업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국회입법조사처가 협력 사무국이 마련될 때까지 오늘과 같은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아시아 태평양 의회조사기구 간의 정기적인 모임이 만들어질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각국 의회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회강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연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기관을 마련하고, 참여국가의 우수한 대학원 수준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 한국에서 의회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발연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지만, 지금 국회입법조사처가 생산하는 정보와 연구 결과물을 다른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및 노어로 번역하여 입법조사처의 website에 게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바라는 바이지만 각국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와 이슈의 연구와 분석에 상호 협력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입법조사기구간 협의체가 탄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회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오늘과 같이 모인 협력기구의 상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을 방문하신 기간에 여러분의 편안함을 바랍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The 2nd International Seminar for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 in Asia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문의 |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팀(02.788.4522)